

к с і

新齋 崔山斗의 詩世界

白淑兒*

<차례>

- I. 머리말
- II. 新齋詩의 創作 背景
 - 1. 間接的인 영향
 - 2. 直接的인 영향
- III. 新齋의 詩世界
 - 1. 自然現象과의 親和的인 詩
 - 2. 交遊詩에 나타난 삶의 認識
 - 3. 忠孝의 敎訓詩의 表現樣相
- IV. 맺음말

I. 머리말

崔山斗(1482~1496)의 字는 景仰이요, 號는 新齋, 羅菴山人, 寵中子 등이다. 본관은 草溪로 전남 광양군 봉강면 부저리에서 漢城判尹에 贈함을 받았던 父親 漢榮과 母親 淸州韓氏와의 사이에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身骨이 빼어나고 도량이 넓었으며 영특하여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글 읽기를 좋아했다. 그리하여 늘 經書를 가까이 하고 성현의 삶을 법으로 받아들여 수행하기를 열심히 하였으니, 그가 지향하는 바가 일찍부터 남다른 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9세 때에 벌써 <詠牛

* 순천대학교

頭), <詠鳥> 등의 詩를 지었고 10세가 넘어서는 文章과 筆法이 뛰어나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여, 당시 光陽縣監이 그 소식을 듣고 文房四友를 갖추어 보내 치하하였다¹⁾고 한다.

15세 되던 해에는 『資治通鑑綱目』 80권을 안고 석굴에 들어가 2년 동안 기거하며 이 책을 천 번이나 통독하고 해석한 후 글 문을 나왔다²⁾고 한다. 이 때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당시 사람의 종장으로 추앙받던 占畢齋 金宗直의 高足인 寒菹堂 金宏弼을 만난 때이기도 하다. 그는 이 때 순천 북문 근처에 유배되어 있었던 김굉필의 처소를 드나들며 학문연구를 심화²⁾했다. 그리고 명실공히 尹衢·柳成春과 더불어 湖南三傑로 일컬어졌으며, 己卯名賢이란 역사적 인물로 남게 되기까지의 기틀을 잡아주는 학문적세계가 완성된 시기로 볼 수 있다.

37세 중종 14년 기묘년 9월에 司憲府 壯齡에 승직되고 이어 議政府 舍人에 올랐으나 이 해 11월 15일 홍경주, 남곤, 심정 등 勳舊勢力들의 構禍에 의한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 등 신진사류 8賢이 먼저 하를 입었고, 곧이어 최산두 등 23賢이 유배 또는 파직되는 화를 입게 되므로 최산두는 削奪官職되어 전남 동북현에 유배되었다.

14년 동안의 유배생활을 화순 동북에서 지내게 되는데, 최산두는 유배가 풀린 후에도 계속 동북에 머물며 많은 유림들을 배출시키고 河西 金麟厚, 石川 林億齡, 眉巖 柳希春 등의 그 시대에 쟁쟁한 학자나 문인들과 교유하며 제자들을 육성하는 데 힘썼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신재는 호남이 문향으로서 자리매김 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장 또한 출중하여 호남시단의 중추적인 인물이요, 호남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이는 그가 남긴 작품이 戰禍로 인해 영성한 점과 후학들의 관심 소홀 및 문학인보다는 도학자로 평가되는 등의 입장 때문이라 하겠다.

1) 草溪崔氏大同譜編纂委員會, 『新齋集』, <序文>, 郎州印刷社, 1989, 24쪽.

2) 崔漢善, 「石川 林億齡 詩文學 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4, 11쪽.

본 연구는 新齋詩의 창작배경을 살펴본 뒤 그의 시를 주제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그의 문학 전반에 대한 특징과 미학을 규명하고, 16세기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신재가 가지는 그만의 작품세계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新齋詩의 創作 背景

문학은 시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므로 그 시대를 떠나선 논할 수 없다. 아무리 개성이 뚜렷한 작가라 해도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 바, 신재 역시 거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 한편, 그가 살았던 시대는 조선조의 격동기였던 만큼 그 시대적 배경이 작가의 세계관, 나아가 작품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문학작품과 정치적 관계는 따로 구분 지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관계는 작품이 간직한 총체적 체험의 일부이며, 정치적 의미가 작품의 전체 의미 속에 일체화 될 때 비로소 문학작품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 이처럼 시대적 배경이 작가의 일생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치·사회적인 현실과 관련시켜 접근하는 태도는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신재가 살아온 시대배경과 교유관계를 중심으로 직·간접적인 창작활동의 영향관계를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다.

1. 間接的인 영향

조선왕조가 창업되면서 새로운 정치철학으로 받아들여진 주자학은 조선

3) 金興圭, 『陸史의 詩와 世界認識』, 『文學과 歷史的 人間』(서울: 創作과批評社, 1980), 77쪽.

말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문학논쟁에서 항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다. 당시 문인들의 성향을 보면 金宗直을 필두로 하여 그의 제자들이 정계에 진출하게 되어 성리학을 중히 여겼고, 그 중에서도 문장과 도학을 각기 옹호하는 쪽으로 나뉘기 시작했으며, 崔山斗는 성리학을 옹호한 쪽인 金宏弼의 제자로 당연히 성리학적 사상에 깊이 임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그의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스승인 김굉필은 호남사람의 학맥을 전파한 인물로, 도학적 사상을 최산두에게 전수시켜 학풍을 계승·발전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 호남의 巨儒로 불려지는 河西와 眉巖과 같은 유명한 제자들의 배출을 가능케 했다.

당시 중앙정계에 진출한 호남사람들의 선조들은 신왕조의 정치적 과동 때 節義를 지켰던가 혹은 초기의 정쟁에 연루되어 희생을 당한 사대부들로서 정치적 보복을 피하고자 가급적 중앙의 정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피신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기후가 온화하고 인심이 좋으며 물산이 풍부한 호남지역을 隱遁의 장소로 적합한 곳이라 여겨 落南하여 왔다. 이렇게 入鄕한 호남사람의 도학적 학맥은 도학자 김굉필이 戊午士禍(1498) 때 평안도 희천에 유배되었다가 2년 후인 1500(연산군 6년)에 순천으로 이거되어 5년간 우거하면서 최산두를 비롯한 제자들을 배출한 데서 비롯된다.

한편, 최산두의 문학관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기묘사회에 연루되어 화순 동북에서 14년간의 유배생활을 하고 있을 때이다. 그 곳에서 호남사람으로 일컬어지는 많은 知友들과 글을 주고받으며 심화된 창작활동을 펼쳤다.

신재는 시대적으로 불우한 시기를 보냈지만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14년이란 세월을 세상과 담을 쌓고 오직 제자들을 육성하고 창작하는 일로 시름을 달래고, 때로는 興趣하면서 경험의 확산을 통한 詩世界를 가꾸어나간 흔적을 느낄 수 있다.

2. 直接的인 영향

新齋는 일찍이 寒暄堂 金宏弼에게 사숙하였고, 趙光朝 등 당대 신진사류들과 道義之交를 맺는 등 그 학문적 淵源은 성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의 나이 18·9세 때 서울로 올라가 趙光朝, 韓忠, 金淨, 金安國, 金湜, 金正國, 朴世燾 등과 더불어 학문적 사귀이 깊었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이들을 일러 ‘洛中君子會’라 하였다. 그가 柳成春, 尹衢 등과 더불어 ‘湖南三傑 斗衢春’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도 이 때를 즈음해서가 아닌가 싶다. 또한 學圃 梁彭孫의 문집에서는 崔山斗와 奇遵, 朴世燾, 梁彭孫을 일러 ‘史學士’라 일컬었다는 기록⁴⁾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經筵의 講官을 세상에서 史學士라 칭하는데 선생하고 服齋奇公遵 道源 齋朴公世燾 新齋崔公山斗가 바로 그분들이다. 모두 한 때의 학문과 행검이 있던 선비였는데 날을 번갈아 가면서 시강을 했다.

한편, 新齋는 화순 동북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도 늘 아버이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 근심하였으며 知友인 思齋堂 安順之는 유배지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최산두는 물론이려니와 그의 부모님의 생활을 보살피주어 걱정을 없애주는 등 훌륭한 교유간계를 갖고 생활해 왔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늘 자상하였으며 가르치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이러한 그의 인품에 대한 글은 思齋堂 安順之에게 보낸 편지에 ‘책이며 울무 등의 제반 물건들을 굳이 너 너히 대어주고 또 주인의 仁賢함에 의지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나그네의 고초를 잊고 지내왔을 따름이오’⁵⁾라고 쓰여 있는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다.

河西의 문집에는 그의 스승인 최산두를 위해 지은 祭文이 있는데, 여기

4) 『國譯學圃集』, 大盛出版社, 檀紀 4326, 121쪽, <家狀>.

5) 安順之, 「安思齋堂集」, 『韓國文集叢刊編纂人名錄』, 1990, <安順之에게>, 書燈薈苴諸物件君幸優之賴主之仁賢越至茲忘旅酸耳

에서 '옛날 내가 丁亥日을 받아 黔中으로 술을 싣고 가서 서로 만나면 쌓였던 회포를 풀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었다. 그 분이 안 계신 지금 이 상자를 열고 조심스레 그 분의 글을 펼쳐보고자 하니, 주위의 몇몇 친구들도 흔쾌히 호응해 주면서 궁금해 한다. 황혼의 나이에 한번 시험해보려 하면 그 분이 하신 말씀대로 해야 함을 알고 있음이다.'⁶⁾라고 하여 최산두의 훌륭한 생애를 추모하고 있다.

河西는 18세 때에 신재 新齋를 만나게 되는데 기묘사회로 화순 동복에 유배된 신재의 명성을 듣고 찾아가 <楚辭>와 <程朱>의 학설을 배운 사람이다. 이 때 하서는 스승 최산두로부터 학문의 깊이를 인정받았으며, 스승의 부음을 받고 달려가 道義를 다했다고 한다.

그리고 尾巖의 문집에서도 최산두를 향해 지은 제문에 '끌어주고 올려주어 날로 부지런히 단점 뺏고 장점 키워 조랑말을 천리마로 내 성글고 오 활하여 그 숨씨 줄렬치만 남다르게 하여 쇠가 자석 만난 듯이 쌓인 의문 풀어 주니 무지한 몸 幸이었네'⁷⁾라고 한 부분에서 가르침에 소홀함이 없는 자상한 그의 자상하고 온유한 인간미를 느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新齋는 다양한 문인들과 가까이 하였으며, 성품 또한 자상하여 동료나 제자에게 깊은 정을 베풀어 존경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4년간의 유배생활 동안은 물론이며 유배에서 풀려난 다음에도 화순에 머물며 여러 부류의 문인들과 교류하였고 많은 유림들을 배출하였다. 동시에 世界와 自然現象과의 親和的인 詩와 交遊詩에 나타난 삶의 認識, 그리고 忠孝의 教訓詩的 表現樣相 등 많은 창작활동으로 호남의 학맥을 이어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 왔다. 이렇듯 호남시단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훌륭한 그의 詩作品을 주제별로 나누어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6) 『新齋集』, 180쪽, <祭崔新齋先生文>, 昔余獲見丁干亥支載酒黔中相遇不疑快談千古襄篋疑披二三君子與相追隨黃昏一試賴此大醫

7) 위의 책, 192쪽.

Ⅲ. 新齋의 詩世界

新齋는 상당 기간 동안 관직생활을 하고 유배생활을 했던 정치인이요, 문인으로 특히 화순 동북에 유배되어 은거하면서 많은 작품들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전해지고 있는 시작품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많은 작품들이 실전되어 전해지지 않았다.

현재 『新齋集』에 실려있는 문학작품은 賦 1篇, 漢詩 18首, 書簡 1篇 등만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그의 명성이나 활동범위, 호남지역에서의 위치 등을 감안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작품량임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여러 교유인물들의 문집 등을 통하여 일실된 작품을 찾는 노력 또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라 하겠다.

최산두의 詩에는 유가적 사상, 즉 성리학을 토대로 도학자적 입장에서 지향되는 세계와 자연현상과의 親和,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느껴오던 交遊詩에 나타난 삶의 인식, 또한 시대적으로 격동기에 겪었던 많은 경험들로 얻어진 忠孝의 敎訓詩的 表現樣相, 끝으로 무엇보다도 그의 정신적 사상이 짙게 담겨져 있는 敘述詩의 形象美 등으로 대별된다. 대체로 그의 시편들은 자아와 세계 사이에 발생된 갈등과 조화를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유가적 입장에서 드러나지 않는 충효와 애민사상을 바탕으로 도학자적 입장에서의 자연과 세계와의 조화와 절제미 등을 추구했음이 파악된다.

1. 自然現象과의 親和的인 詩

여기서는 자연과의 친화적인 시들을 들 수 있는데 그의 작품 중에서 절반 이상이 차지하며 내용면에서 자연세계의 질서, 조화, 이치 등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詩作品 속에 형상화된 자연미와, 인간과 세계와의 결합 양상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다음의 <題勿染亭>⁸⁾에서는 자연현상과의 비유에서 詩的 참신성과 기발함을 느낄 수 있다.

江含白玉窺魚鱉 강이 백옥을 머금으니 백로는 고기를 엿보고
山吐黃金進蝶鷺 산이 석양을 토하니 피꼬리가 나비인줄 알고 쫓는다

이는 앞의 두 구를 잃어버린 詩이지만, 勿染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淸靜한 세계다. 이것을 마주한 강과 산, 그리고 그 속에 노니는 노란 피꼬리와 나비는 그대로 한 폭의 山水畵를 연상케 한다. 더욱이 ‘강이 백옥을 머금으니 백로는 고기를 엿본다’라고 한 표현과 ‘산이 석양을 토하니 피꼬리가 나비인줄 알고 쫓는다’라고 한 비유는 절묘하며 기발하다. 이 시에서는 바로 이러한 시적 구성과 절묘한 표현을 통해 俗態를 벗은 淸淨勿染의 세계로 독자를 이끌고 있다. 또한 이 시의 上下句缺 부분의 표현은 사람의 마음이 반드시 깨끗해야 한다는 도학자로서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연현상에 빗대어 이어진 듯 하다.

다음은 최산두가 8세 때에 지은 <詠牛頭>⁹⁾를 살펴보았다.

爾從麟借尾 소야 너는 麒麟에서 꼬리를 빌리고
炎帝與其頭 炎帝가 그 머리를 주었구나
地關中寅子 땅은 寅時와 子時 사이에 열리고
商正間夏周 商나라 正月은 하나라 주나라 사이로 하였더라
夜奔燕將劫 밤중에 敵陣을 돌진하니 燕나라 장수가 겁을 내고
春喘漢相憂 봄날에 숨 헐떡이니 漢나라 宰相이 걱정하는구나
未賴齊王易 齊宣王이 羊으로 바꾸어 주지 않았다면
煙郊牧笛收 지금쯤 煙郊에서는 牧笛이 사라졌으리라

이 詩는 儒學의 경전과 중국 역사상의 사실들을 원용하여 시상화하였는데,

8) 『新齋集』, <題勿染亭>

9) 위의 책, <詠牛頭>

특히 『孟子』 〈梁惠王〉 章을 읽고 느낀 바를 시로써 형상화한 것이다. 소의 형상이 사람의 몸을 하고 머리는 소의 머리와 같았으며,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으므로 神農氏라고 일컬었다¹⁰⁾는 中國 古代 전설상 帝王을 들어 ‘齊宣王이 양으로 바꾸어 주었다’고 표현하였다.

이 시에서는 性理學에서 宇宙의 生成을 說明하면서 ‘하늘은 子時에 열리고, 땅은 丑時에 열렸으며, 사람은 寅時에 났다’고 한데서 ‘地關中寅子’라는 구절을 따와 ‘땅이 丑시에 열렸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곧 소가 땅을 연 靈物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최산두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中國 齊나라 장수 田單이 燕나라와의 싸움에서, 천여 마리의 소에다 붉은 비단옷을 입히고 불을 붙여서 일제히 연 나라 진영으로 내몰아 꼬리에 불이 붙어 미친 듯이 날뛰는 성난소로 하여금 연나라 군사들을 닥치는 대로 짓밟아 殺傷케 했던 故事와, 齊나라의 宣王이 소가 鑿鐘¹¹⁾에 쓰일 祭物로 몸을 떨면서 죄 없이 끌려가는 것을 보며 애처롭게 여겨 소를 놓아주고 대신 羊으로 바꾸어 쓰도록 한 故事를 원용하여 시상을 일으켰다. 소의 위대함이 鑿鐘하는데 쓰여 결국 소가 멸종 위기에 처했는데 다행히 제선왕이 소의 곡송한 모습을 보고 양으로 바꾸라고 하여 간신히 멸종의 위기를 면했다고 하면서 그 속에 많은 내용을 함축시켰다.

최산두는 이미 조선조 사림들의 자연세계의 인식에 대한 유형인 以景入道의 성향으로 작품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자연세계의 調和와 秩序와 理致를 體得하는 探理的 性向을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題丑川亭>¹²⁾은 최산두가 유배생활을 했던 동북에 있는 丑川亭을 노래한 것으로 上下句가 빠져 있다.

川上亭名曾揭丑 ‘川’위의 정자 이름에 ‘丑’자를 걸었으니

10) 위의 책, 84쪽.

11) 종이 새로 만들어지면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새 종의 갈라진 틈을 바르던 일종의 종교의식.

12) 위의 책, <題丑川亭>

人間離別自生寅 인간 이별은 절로 寅時에서 생기겠네

이 詩에서 땅이 丑에서 열린다는 말은 ‘地開於丑’에서 따온 표현이며, ‘인간 이별이 寅에서 생기는 것’이란 말은 ‘人生於寅’에서 따온 표현이다. 이는 성리학에서 宇宙의 生成을 설명하면서 쓰이는 말이다. 또한, 이 詩의 제목을 <丑川亭>이라고 한 데에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현존에 보다 가깝게 접근시키려 함을 느낄 수 있다.

최산두의 詩는 道學者의 딱딱한 理念의 벽을 느낄 수 없는 순수한 감성을 드러낸다. 이 詩를 보면 비록 상하구가 빠져 있어 詩다운 면모를 다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그의 생애가 불우하지 않았던들 이와 같은 詩들은 더욱 격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고, 변뜩이는 靈感은 後學들에게 소중한 재산으로 남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모습은 다음의 <天子菴遊觀>¹³⁾에서도 볼 수 있다.

同來白髮好風情	같이 온 늙은이 풍채도 좋을시고
筇履斜陽氣太清	지팡이 짚었다만 석양빛 같이 깨끗하구나
何處靑菴云別界	속세 떠난 靑菴은 어느 곳에 있는가
穿林故向暮鍾聲	숲을 헤쳐가며 저녁 종소릴 향해 걷는다

천자암을 보기 위하여 함께 동행한 백발이 성성한, 그렇지만 풍채가 당당한 인물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입장과 처지를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천자암’이 상징하는 것과 ‘백발’이 뜻하는 바를 음미해 보면 시인의 뜻함이 무엇인지 쉽게 납득할 수 있다. ‘白髮翁’은 己卯名賢을 빗대어 士林들의 불굴의 표상으로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의 진실을 지키려는 굳은 절개를, 그리고 청초하고 고고한 자세로 永遠性을 지향하는 自然의 세계를 士林에 빗대어 描寫하고 있다. 이는 自然景物을 통하여 性情을 도모하고 自然의 이치를 터득하고자 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13) 위의 책, <天子菴遊觀>

사람이 겪는 세상의 많은 苦痛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음 처럼 힘든 일은 없다. 삶과 죽음의 역올한 엇갈림이 당시의 정치현실이고 보니 그도 또한 사랑하는 知友들과 헤어져 동복으로 유배를 오게 되었고, 자신의 인간적 한계와 고통을 맛보는 순간에 자연을 빗대어 불굴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에 최산두의 개인적인 고독과 괴로움의 이면 에 질게 깔린 진실한 그리고 순수한 인간미를 느끼게 한다.

다음 <司馬宴¹⁴⁾>은 자연과의 조화미가 한층 더 表출되고 있는 詩로 河西의 ‘술 대하면 거나하고’¹⁵⁾라고 했던 신재에 대한 추모의 글을 되새기게 한다.

桑甚青红柿葉肥	뽕나무는 푸르고 오디는 붉고 감잎은 두툼하니
小園風物屬芳菲	작은 동산에 풍물들이 꽃답고 향기롭네
欲知司馬樽中盡	司馬所 술동이 빈 까닭을 알려거든
看取先生醉後歸	선생이 취해 돌아가는 모습에서 찾아보소

위의 詩는 『大東野乘』 所載 「海東雜錄」에 실려 있다. 그 詩作 유래를 보면 “일찍이 本縣 司馬所¹⁶⁾에 연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최산두가 먼지가 보았더니 다른 司馬들은 아직 모이지 않아 거기 마련해 둔 술을 다 마셔버리고 돌아왔다. 지키는 자가 죄를 쓸까봐 두려워하므로 그는 감나무 잎을 따서 詩를 적어 놓았다¹⁷⁾고 한다.

이 詩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취해서 뽕나무가 푸르고 오디가 붉으며 이파리들이 두툼하듯 자신도 그렇게 되고픈 심정을 노래하여 자연현상의 멋을 진하

14) 위의 책, <司馬宴>

15) 金麟厚, 『河西全集』 下, (株)寶晉齋, 1988, 99쪽~105쪽, <祭崔新齋文> 揚行草羽毛縹緗 豪橫縱酒跌宕闊某彎強發勁無適非宜

16) 위의 책, 88쪽. 사마소는 지방의 생원, 진사들의 사설기관으로 지방의 官衙 도처에다 별도로 건물을 갖추어 여기에 모여 지방정사를 논의하고 간섭하던 곳인데 폐해가 많아 조선 선조 때 혁파 시켰다.

17) 이동환, 「海東雜錄」, <崔山斗傳>, 『大東野乘』 所載, 財團法人民族文化推進會, 1971, 76~77쪽.

게 묘사했다.

일찍이 文人으로 호남사람의 맥을 이어받은 그의 제자 河西 金麟厚의 문집에는 이러한 최산두의 자연과 함께 하는 생활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시인다운 멋을 증명해 주는 글귀가 실려 있다. “생각하옵건대 靈은 높은 산 큰 龍虎의 모습이요, 늘씬한 몸 좋은 수염 神骨이 傀奇했네. 물들세라 닦일세라 웅장하고 호방하여 가슴속은 바람과 달 문장은 三峽을 쏘고 氣蓋는 세상 뒤엎네”¹⁸⁾라는 글을 보면, 그에게서 우리나는 모든 성정이 자연현상과 현존하는 속에서 詩文 속에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음과 동시에 그의 詩에서는 넉넉한 경지를 엿볼 수 있다.

다음은 자연의 정취를 맘껏 펼치고 있어 詩的 분위기를 한층 느낄 수 있는 그의 詩 <炊煙>¹⁹⁾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江南朝暮帶昇平	江南땅 아침 저녁이면 昇平을 띠고
細逐村娥若有情	촌 아낙 따르는 모양 정이 있는 듯 하구나
時時隨雨前山渡	때때로 비를 따라 앞산을 건널 때면
洗出塵埃氣太清	물은 티끌 씻어주어 기운이 더욱 맑구나

위의 詩에서는 자연과 인간사가 아울러 조화를 이루고 있는 敍景的 繪畫美를 표현하고 있다. 밥을 짓는 연기가 촌색시의 치맛자락을 싸고도는 모습이나 산자락을 타고 넘는 모습이 實景처럼 묘사되어 천지운행의 질서에 인간의 現存이 주는 조화로운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한다. 또한 詩의 분위기가 대체로 평온하면서도 정겨운 景中情의 융합수법으로 시인의 意境이 함축되어 깊은 여운의 맛을 느끼게 한다.

아침저녁으로 일렁이는 농촌의 진경을 시인의 여유 있는 시각으로 설정한 후 산자락을 타고 넘을 때엔 塵埃까지도 씻겨낸다는 표현으로써 자연과 인간

18) 金麟厚, 『河西全集』 下, (주)보진제, 1988, 新齋崔先生地靈惟靈高山 大壑龍虎之姿長身美髯神骨魁奇

19) 『新齋集』, <炊煙>

의 천지운행의 질서를 조화롭게 합치시켜 한 편의 詩로 읊었다.

朝夕으로 느껴지는 눈앞에 펼쳐진 촌락의 풍경을 하나 하나 풀어서 서술하자면 한없이 길어지겠지만, 그는 단지 몇 개의 구절로 능숙하게 함축시킨 능력이 돋보이는데 그 아름다움을 자연스런 율조와 살아있는 리듬감으로 요약해 내는 솜씨 또한 일품이다. 그러면서도 촌락의 아늑하고 평화로운 멋진 勝景을 모두 묘사해 낼 수 있음은 그의 詩 창작성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짐작케 한다.

다음의 <漁網>²⁰⁾에서도 자연과 인간의 현존이 융화하는 내용으로 詩想을 펼치고 있다.

鱗結義繩數可深	伏羲氏 ²¹⁾ 의리의 줄로 촘촘히 엮은 그물은
長江水盡積如林	長江 너른 물에 숲처럼 뻗어 들어섰네
設網以法無遺細	법으로 설치한 그물 빠져나갈 수 없나니
雖有吞舟不敢侵	배를 삼킬 大魚라도 감히 범치 못하겠네

위의 詩는 표면적으로 天理를 유지함으로써 사사로운 욕망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겠다는 성리학적 心性觀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옹지 않은 구속으로 여기고 현실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자연의 현상과 비유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면 서까지 私利私慾을 채우겠다는 인간사를 꼬집어 자연의 자연스런 질서 회복과 그에 대한 조화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한편, 이 작품에서 최산두는 자연현상을 비롯해 비판적 사회의식을 표명하고자 했으며 당대의 정치현실을 우회적으로 풍자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을 읊은 경우의 성격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士林派가 국정에 참여하자 勳舊派가 질시하고 모순하여 축출한 뒤 민정이 편하

20) 위의 책, <漁網>

21) 위의 책, 93쪽. 中國古代傳說上の 帝王, 三星五帝의 首位를 차지하여 8卦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물을 발명하여 고기잡이의 방법을 가르쳤다고 함.

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국방에 대한 불만, 훈구파에 대한 적대의식과 사회 이후의 稅政에 대한 답답함을 자연현상에 빗대어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附柳眉巖次韻>²²⁾은 眉巖이 신재의 시에 차운한 詩이다.

結得山燈水淺深	山燈을 매달으니 물빛이 환하고
風網星罟向楓林	바람일고 별빛 쏘는데 단풍 숲을 향하네
漁人乘月長江舉	漁夫들 달빛을 타고 長江에 배 띄우니
宿鷺驚飛去癩侵	잠자던 해오라기는 놀라 날고 수달은 도망하네

위는 마치 어촌의 한 때를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한 서정시로서 한가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데 가을날의 청량함과 상쾌함을 더해 주는 작품이다.

작품이 그대로 한 폭의 그림 같이 묘사된 풍경화 같은데, 그 깔끔함이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한 이 詩에는 아름다운 자연의 묘사와 아울러 ‘어부들은 달빛을 타고 長江에 배 띄우니’라는 구절에서는 백성들의 삶의 현장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앞선 詩에서도 보았듯이, 최산두는 自然美라는 실체를 常道具現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민생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詩, 시인의 정서와 생각이 자연현상과 함께 어우러지는 詩世界를 구축했다.

다음 <更登天子菴>²³⁾은 초가을 山寺의 情景과 고요, 그리고 脫俗한 분위기를 그림처럼 잔잔하게 펼쳐며 묘사하고 있다.

菴云天子在高峯	天子라 하는 菴子가 높은 봉우리에 있으니
客帶江南故舊從	나그네는 강남 옛친구 따라 나서네
山意迎秋新染色	산은 가을을 맞아 물들려하고
鍾聲待曉默爲容	종소리는 새벽을 기다리느라 잠잠하네
無緣鶴髮閒眠枕	인연 없는 鶴髮은 한가로이 잠들고

22) 위의 책, <附柳眉巖次韻>

23) 위의 책, <更登天子菴>

自抱琴情靜聽松	거문고 안은 정으로 솔바람 소리를 듣네
風月清澹然後景	風月 이 맑은 뒤에 경치가 더욱 아름다워
虛勞遊杖劈千重	고생도 모르고 천 겹 벽을 오르네

작자는 이 작품에서 情景의 融會,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조화 있는 융화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산은 가을을 맞아 물들려하고 종소리는 새벽을 기다리느라 잠잠하네’라고 한데서 시인 자신의 유배생활을 조화로운 자연과 대비시켜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天子는 임금 즉 군왕을, 백발노옹은 사회로 인해 은둔한 士林들을 비유하고 있으며 종소리는 당시 정치적인 소용돌이의 상징으로 표현한 듯 싶다. 이는 실제의 자연을 통하여 성정을 陶冶하고 청렴한 기상과 고귀한 기상, 나아가 진실한 인간적 삶을 추구하는 시인 자신의 정신세계를 형상화 한 것이다.

최산두는 ‘고생도 모르고 천 겹 벽을 오르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이미 한번 둘러진 임금의 마음이 쉽게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뜻을 담아 초연히 俗世를 벗어나 청명한 기상을 지키려는 순수한 정신과 더불어 인간사의 고뇌를 고발하고 있다.

끝으로 <初秋會天子菴>²⁴⁾에 나타난 자연과의 조화를 염원한 시인의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다.

白髮青年匣一樓	백발과 청년이 누각에 둘러앉아
酒遊別境興難收	술잔을 나누는 자리가 한없이 즐거워라
兼嘗鷄麵嫌清佛	닭고기, 국수 다 맛보면 부처에게 혐의가 될까
宜啖菘肴送遠邱	의당 채소를 먹어야 遠邱에 보내지겠지
樹盡影斜紅日冑	나무 그림자 기울더니 해는 서산에 지고
峯皆塵滌白雲浮	봉우리마다 티끌 씻느라고 흰 구름은 떠도네
詩人遊浪逍遙跡	詩人 이 유랑하며 노닐던 흔적들
起把歸筇後約留	다시 막대 짚고 돌아가며 훗날을 기약하네

24) 위의 책, <初秋會天子菴>

위 詩는 酒興이 宴席의 情趣로 한껏 펼쳐져 있으며 자연미를 融會하면서 그 融和을 통하여 人棼의 도리를 나타내고 있다. ‘술잔을 나누는 자리가 한없이 즐거워 닳고기며 국수 다 맛보면 부처에게 혐의가 될까’라고 하여 내면 성정의 본연의 고요를 지켜 현존의 人棼의 도리를 지켜야 함을 강조한다. ‘봉우리마다 티끌 씻느라고 흰구름은 들 떠도네’라는 표현은 최산두의 초연한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詩人이 流浪하며 노닐던 흔적은 다시 막대 짚고 돌아가며 훗날을 기약하네’ 하는 대목 속에는 현실을 떨쳐버릴 수는 없되 한 잔 술과 자연 속에 묻혀있는 삶을 살수밖에 없는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허전한 뒤끝을 감출 길 없는 시인의 속마음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어떤 곳에서도 충족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시인의 內面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新齋의 자연과의 친화적인 詩에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하는 풍류, 이것은 곧 시인자신의 가슴속에 시적 흥취를 나아내게 하는 좋은 매개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화로운 자연을 吟味하면서 시대의 倫理와 늘 변하지 않는 인간의 道理와의 조화를 罔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16년이란 긴 세월의 유배생활에서 얻어진 그의 淸明한 性情이 자연 현상과 맞물리면서 詩文 속에 자연히 표현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자연을 빗대어 표현한 풍자적인 시선까지 섞어 놓을 정도로 그의 詩에서는 넉넉한 경지를 엿볼 수 있다.

2. 交遊詩에 나타난 삶의 認識

삶이란 하나의 연속된 과정이지만 사람의 사상과 의식은 환경과 연령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사람을 만나거나 서책을 통하여 느끼는 다른 환경은 일종의 충격으로 와 닿기 마련이다. 추사와 다산의 만남, 초의 선사와 다산의 만남 등이 그러하거나 신재의 경우에도 한훤당, 하서 등과의 만남으로 인해 새로운 세계적 개안과 삶에의 희망을 얻는다.

한편, 최산두가 교제를 나누었던 知友들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文集이 失傳되어 現傳하는 작품수도 적을 뿐 아니라, 교제의 범위도 명확히 알 수 없다. 우연히 한 번 만나 시를 지어 주고 헤어진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安順之의 문집에 보이는 그가 보낸 서신을 보면 ‘그동안 君이 松廣佛紙를 보내준 것이 무려 오백 여권이었는데 다만 두 책만 나누어 보냈으니 본래의 바람을 너무 크게 저바렸소이다.’²⁵⁾라고 한 것으로 보아 知友들과 나누는 작품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문학작품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현전하는 문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대부분 그가 유배생활을 했던 전남 동북 화순에서 지은 작품들이다.

다음 <與柳眉巖同宴>(80)의 내용을 보면 제자인 柳眉巖과 酒興이 도도한 宴席의 情趣를 한껏 펼쳐 보이고 있다.

白髮文章放醉歌	백발 문장이 醉歌를 부른 것은
蓋由宴席酒盃多	宴席에 술잔이 분주했기 때문이라
雲樹深情猶未了	雲樹처럼 깊은 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落花啼鳥夕陽阿	저물녘에 꽃은 지고 새만 지저귀네

위에서 살펴본 바로, 한 詩人의 현실에 나타나는 葛藤은 自然生活에서 도 그대로 표출되어 문학으로 흐른다. 시비다툼을 하는 험악한 세상을 逸脫한 충족감에 늙은 문장의 체면도 아랑곳없이 술에 취한다. 그리고 現世를 逸脫하여 영원히 塵累를 술이란 冷徹한 지적 정신과 대립적인 陶醉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몸은 늙고 名譽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지만 마음만은 젊은 날에 못지않다는 것이다.

또한, 弟子를 만나 너무 반가운 나머지 세상 모든 것을 잊고 술을 마시지만 잠도 오지 않는다는 表現으로 보아, 젊은 사람의 醉歌는 자연스럽지 만 늙은 문장의 지나친 飲酒는 단순히 현실생활의 逃避로서 혹은 아름다움의 피상적

25) 安順之, 앞의 책, <與安順之>, 君輪松廣佛紙無慮五百餘卷但分兩冊殊失本望

인 感想에 그치지 않았음을 내포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신재에게 있어 眉巖은 사제기간이면서도 아끼는 知友로 서로의 흥취물을 털어놓을 수 있는 허물없는 사이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그는 술에 취해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털어놓아 위안을 얻고 있다. 또한 그런 그의 모습은 친교의 정담을 한층 느낄 수 있게 한다.

또한 <附柳眉巖次韻>²⁶⁾에서도 사제간의 정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有其嘯也有其歌	한 사람이 읊조리면 또 한 사람 노래하니
迎送情懷日夕多	보내고 맞는 정이 날로 더욱 두텁구나
未把東西分去袂	멀리 떠나가는 소매 붙들지 못하니
他年花發樂遊阿	훗날 꽃피거든 다시 찾아와 놀아보세

위 詩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산두와 유희춘의 師弟간의 情이 얼마나 두터운가를 잘 알 수 있다. 기다림이란 일반적으로 지루하고 안타까운 것이다. 對話를 나누고 그 동안의 그리웠던 情을 나누는 만남은 人間事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東西로 멀리 떠나가는 師弟間的 아쉬움을 ‘소매를 붙잡지 못한다’고 표현함으로써 두터운 情을 나타내고 있다.

최산두와 유희춘은 또한 서로 그림고 정겨운 心情이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師弟間的 정이 두터워 ‘만날수록 情이 더욱 두텁다’고 표현하였고, ‘소매를 붙잡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표현으로 하여금 두터운 정을 아름다운 시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소매를 붙잡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점까지 아름답게 이어지는 표현은, 오래 머물기보다는 다시 만날 날을 위해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엿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贈尹橋亭衢>²⁷⁾는 『大東野乘』 所載 <海東雜錄> 1卷 ‘崔山斗傳’에 보이는데 이에 의하면 이 詩는 최산두가 舍人벼슬로 있다가 同福으로 귀양을

26) 위의 책, <附柳眉巖次韻>

27) 위의 책, <贈尹橋亭衢>

가서 蘿山 아래 살면서 湖南三傑의 한사람인 橋亭 尹衢에게보낸 詩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江路尋春晚	봄 따라 나선 강둑 길 해가 저물어
思君步月詩	그대 생각하며 달빛에 詩를 읊는다
年年山澗曲	해마다 산모퉁이 시냇물 사이에서
隨分有生涯	분수 따라 나는 살아갈 뿐이네

湖南三傑로 이름을 떨쳤던 尹衢를 그리워한 詩인데, 봄의 길목에서 밤을 새워가며 친구 생각으로 詩를 읊고 있다. 시인의 마음과 시의 내용은 시냇물 소리에 실려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에게 가겠지만 현실의 처지, 곧 분수를 지키겠다는 신념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비록 떨어져 사는 知友지만 글로나마 정담을 나누며 시름을 달래 보려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鳳仙花>²⁸⁾에서 최산두는 세속적인 욕망을 훌훌 떨쳐버리고 있는데 단금과 적송, 봉선화는 다정한 신선세계의 표징이다.

丹禽飛下赤松從	丹禽 ²⁹⁾ 은 내려오고 赤松 ³⁰⁾ 은 따라가고
誤落人間今幾載	인간 세상에 잘못 내려 온지 몇 해이던가
別春富貴 ³¹⁾ 樂相逢	4월이면 모란과 서로 만나 和樂하고
一種名葩不妬容	한송이 ³²⁾ 꽃이 되니 샘 날일이 없으랴

28) 위의 책, <鳳仙花>

29) 위의 책, 92쪽. 丹禽은 곧 丹鳥인데, 단조는 鳳凰새의 이칭이다. 이 봉황새는 경사스러움을 상징하는 상징상의 새로 몸과 날개엔 오색 빛이 찬란하고 五音에 맞는 소리를 내며, 오동나무에 깃들이고 대의 열매를 먹으며, 醴泉의 물을 마신다고 한다. 聖天子가 나타나면 이 새가 나타나는 데, 못 짐승들이 따라 모인다고 하며, 용·기린·거북과 함께 四靈物의 하나로 친다. 시에서 단금 곧 봉황은 鳳仙花의 첫 글자인 鳳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0) 위의 책, 92쪽. 赤松은 옛 선인 赤松子를 지칭하는 말로, 곧 神仙들이 사는 仙界를 뜻한다. 따라서 이 赤松 곧 仙界는 鳳仙花 가운데 글자인 仙자를 비유한 것이다.

31) 위의 책. 牡丹을 부귀화라 이르는데, 周敦頤의 「愛蓮說」 가운데 '牡丹은 꽃 중의 부귀한 꽃이다(牡丹花之富貴者也)'한 표현이 보인다.

32) 위의 책, 92쪽. 원문의 葩(꽃봉오리)는 곧 봉선화의 끝 글자인 花자를 비유한 표현, 따

丹禽은 丹鳥 곧 鳳凰의 이칭이며 봉선화의 첫 글자인 鳳자를 말한 것이다. 또 赤松은 옛 仙人赤松子를 말함이니, 곧 神仙들이 산다는 세계를 비유한 말로 봉선화의 가운데 글자인 仙자를 말한 것이며, 한 송이 꽃은 끝 글자인 花를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丹禽은 내려오고 赤松은 따라가고 한송이 꽃이 피니’는 鳳仙花의 글자를 풀어 그 由來를 전설처럼 꾸며 마치 다정한 친구처럼 비겨본 絶妙한 비유인 것이다.

그가 비록 草野에 묻혀 있지만 人間事에 미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世俗의 慾望을 많이 떨쳐 버린 상태이지만 아직 世俗人으로 ‘4월이면 모란과 서로 만나 화락하네’라는 구절에서 知友들과도 다시 만나 세속적인 욕망이라 하더라도 아름답게 昇華된 모습으로 새로운 세계를 희망하는 詩心을 비추이고 있다.

또한 <輓安思齋堂> 二首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名聲藉甚冠群倫	명성이 높기로는 同輩 중에서 으뜸이지만
自愧孤蹤廁後塵	외로운 자취는 뒷전 티끌이라고 스스로 부끄러워했네
學行文章敢同日	학행과 문장은 감히 누가 따르리오
悲涼毀謗卽分身	슬픔과 훼방을 너무나 많이 겪었다오
青年地下君猶逝	청년인 그대가 지하로 갔으니
白髮人間我孰親	백발인 나는 인간 세상에서 누구와 벗할꼬
花鳥滿林春似海	꽃과 새들 가득한 숲 봄이 바다 같은데
一樽何計笑談新	술독 마주하며 談笑할 날을 언제나 기약할까 ³³⁾
早從師友便尋依	일찍이 師友로 따르며 서로 의지했더니
學行淵源世所推	학행의 연원은 세상이 推重하였네
紅紙題名連九葉	붉은 종이에 쓰인 이름은 9년을 이어왔고
丹心許國曠當時	속마음을 나라에 바쳐 당시에 빛났더라
鶴盤遠勢疑橫漢	학이 노는 모습은 은하를 건너는가 싶은데
蘭謝芳心竟怨誰	난초가 향기를 그쳤다고 마침내 누굴 원망할까

라서 이 詩의 ‘단금은 내려오고 적송은 따라가고 한송이 꽃이 피니’라고 한 구절은 봉선화의 글자를 풀어 쓴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33) 위의 책, <輓安思齋堂> 첫째 수.

一士邦榮亦難得 나라를 빛낸 선비는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니
悲傷非獨爲吾和 슬퍼하는 것은 나의 감정만이 아니리라³⁴⁾

위 詩는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交友인 安順之의 죽음을 슬퍼하며 쓴 작품이다. 죽음에 대한 認識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일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최산두는 知友의 죽음에 대해 이별의 슬픔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安順之의 죽음을 대하고 쓴 二首의 詩는 이상현실의 단절과도 연결되는 듯하다. ‘꽃과 새들 가득한 숲이 바다와도 같은데’ 이 아름다운 현실을 뒤로 한 채 현실에서 멀어져 버린 친구의 죽음을 처음 시에서 읊고 있다.

安順之는 官職에 있는 동안 자신의 경륜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政敵들과 많은 葛藤을 겪어야만 했고, 그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落鄉의 길을 택했다. 뿐만 아니라, 流配地에서 窮乏하게 살아가는 知友인 최산두를 위하여 文房四友며 主食으로 많은 위안을 주었다.

아래 두 번째 詩의 내용을 볼 때에 두 知友는 여러 벗 중에서도 애뜻한 友情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책이며 燈·울무 등의 제반 물건들은 君이 넉넉히 대어주고 또 주인의 仁賢함에 의지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나그네의 고초를 잊고 지내왔을 따름이오”³⁵⁾ 라고 쓰여 있다. 이렇듯 허물없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깊은 정을 나누던 知友의 죽음은 최산두에게 있어 한없는 안타까움을 자아나게 했을 것이다.

두 번째 시에서 ‘나라를 빛낸 선비를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니 슬퍼하는 것은 나의 감정만이 아니다’라고 하여 知友의 죽음을 애써 위로하고, 安順之의 죽음은 곧 나라의 슬픔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최산두의 交遊詩에서는 사제지간의 허물없는 정과 친구간의 의리를 통해 나타난 그의 인품을 느낄 수 있었으며, 도리와 인륜을 중시 여겨온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로 그의 생애의 전반에 있어 경험

34) 위의 책, <輓安思齋堂> 둘째 수.

35) 安順之, 앞의 책, <輓安順之(三)>. 書燈薏苡諸物件君幸優之賴主之仁賢越至茲忘.

했던 훌륭한 교유관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단정하고 엄격한 도학자였지만 지우와 문하생들에게 때로는 인자한 스승으로서 때로는 다정한 벗으로서 茫然之交를 맺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그의 시편에서 두루 발견되었으며, 그의 인간미가 새삼 각박한 현세와 너무나 거리가 있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준다. 그의 시에 나타난 진솔한 삶의 인식은 학자로서의 신념과는 다른 또 하나의 그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3. 忠孝의 敎訓詩的 表現樣相

朝鮮朝 士大夫 文學의 중요한 내용적 특성의 하나는 忠臣戀主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國家와 임금에 대한 忠은 孝와 함께 士大夫들의 가장 으뜸가는 德目이었다. 『說文解字』에 따르면, ‘忠은 敬이며, 마음을 다하는 것을 忠이라 한다(忠敬也 盡心曰忠)’ 그러므로 이 忠은 자신의 中인 精神을 충실하게 해서 行動하는 성실의 의미를 지닌다.

個人보다는 國家나 君主를 우선시하는 儒家 思想에서는 忠의 이러한 의미는 보다 확대되어 자신을 犧牲하고 國家나 君主를 위해 노력하는 忠義의 德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儒家思想이 어느 정도 확립된 泰·漢 이후의 國家체제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忠이 孝와 함께 가장 중요한 德목이 된 것이다.

최산두의 忠孝詩의 특징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의 도리를 근본으로 새기며, 인간사의 가장 원초적인 행위로 충효를 최고로 주장하되 큰 목소리가 아닌 잔잔한 미풍처럼 그윽하게 은근한 화법으로 나타내고 있다. 곧, 생경한 구호나 일방적인 교술이 아니라 마치 방안에 둔 유자 향처럼 숨어서 소리 내는 듯 暗香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다음 글의 내용은 최산두가 부모에게 行하는 孝에 대한 깊은 마음을 헤아리게 한다.

앞내에서 붉은 게며 은빛으로 놀다 파닥이는 고기들을 많이 잡거들랑 우리

늙으신 어머님께도 좀 보내 주오, 연세가 많아 살날이 많지 않으시도록 反哺의
 孝를 이룰 길 없으니 하루가 天日 보다도 더욱 길기만 하오.³⁶⁾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질서도 없이 권력이 橫行하는 시대에, 양심적인
 젊은 지식인으로서 堂堂하게 스스로의 몸을 던져 자신의 삶에 대한의지를 분
 명히 하였음에도, 부모에 대한 反哺의 효를 못 다함은 심히 어렵고 고통스러
 운 일이다. 이에 최산두는 충효에 대한 강인한 의지를 詩로도 표현해 자신을
 더욱 강인하게 표상시켰다.

그러므로 최산두의 詩文學에 나타난 또 하나의 美學은 곧 고고한 선비 본
 연의 자세에서 그윽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 일방적인 주장, 또는
 주입이 될 주제의식을 자신의 내면에서 완전히 육화시켜 성숙한 道의 경지에
 이르는 도학자답게 암향의 애민과 충효의식을 우리는 신재를 통하여 맛보게 된
 다.

다음 <詠鳥>³⁷⁾는 自然美의 永遠性을 吟味하면서 人間의 도리를 제시하는
 성향을 보여 주는 作品이다.

雌雄莫辨孝爲名	암수 가릴 것 없이 모두 孝鳥라 이름하니
可愛禽中反哺聲	새 중에서도 '反哺' 소리가 사랑스럽구나
天上人間靈物謂	天上에서나 人間에서나 靈物이라 이르니
雙星七月作橋迎	七夕이면 다리 놓아 두 별이 만나게 하더라

위의 詩에서는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늙은 어미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는 말을 상징하는 反哺라는 詩語로 자식이 어머니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비유하고 있다. 까마귀의 '반포'는 자연적인 것이며, 있어야 할 필연적
 것이기에 그것을 본받고자 하는 인간의 도리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칠월
 칠석이면 다리를 놓아 두 별을 만나게 해 주는 것 또한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

36) 위의 책, <安順之에게>.

37) 위의 책, <詠鳥>.

아들여 사물의 이치와 삶을 조화롭게 나타내 주고 있다.

다음 <天子菴霖雨吟>에서는 최산두의 애민에 대한 의리를 읽어낼 수 있다.

雲窓愁道九年天	雲窓에서 道學공리 아홉해가 되었는데
積日瀑鈴漢浦連	연일 쏟아지는 빗방울 은하수로 이어졌네
可使江山爲水國	만일 江山이 물에 잠겨 水國이 된다면
蒼生渡口欲扶船	蒼生들은 浦口에서 배를 붙들려 하리라

위 詩는 최산두의 道學 공부가 經世濟民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소나기’는 매체역할을 하고 ‘강산이 수국이 된다면’ 라고 한 것은 道로 덮어 버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도가 蒼生에게 펼쳐진다면 蒼生들은 道를 찾기 위해 浦口로 나와서 배를 붙들려 할 것이다. 道學을 연구하는 者들이 태평을 꿈꾼다고 하면 그 道가 실현되는 것이 이러한 광경을 이룸이다. 자신의 도학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그 혜택이 가뭇의 비처럼 백성에게 내려가기를 희망하는 애정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贈安順之歸養南原>(93)은 아버이를 봉양하기 위해 南原으로 돌아가는 安順之에게 보내는 詩이다.

公義私恩較重輕	公義와 私恩의 경중을 비교하지만
有時相奪兩難並	때로 여의치 않아 둘 다 온전키 어렵네
生逢以孝爲治日	평생 효로써 다스릴 기회를 만나
判得將親養一城	장차 부모봉양 할 곳으로 찾아 드네
白雲回首眼長明	흰 구름은 머리 돌려 긴 하늘에 잠들고
紫闕關心身漸遠	대궐에 마음만 맡기고 몸은 점차 멀어지네
東風暖日歌棠棣	봄 되어 따스해지면 棠棣歌를 부르리라
南返相依母子情	남원으로 돌아가 의지할 모자의 정을 나누소서

위에서 公義를 세움은 임금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私恩을 보답함은 부모에게 孝를 다하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둘 다 온전키 어렵네’라

고 표현 한 것은 안순지가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하여 임금의 곁을 떠나 下鄉 할 수밖에 없음을 비겨서 한 말로 충효가 兩全하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흰구름은 머리 돌려 긴 하늘에 잠들고 대궐에 마음만 맡기고 몸은 점차 멀어지네’라고 하여 임금에 대한 충성스런 마음을 乏盡하게 그려놓고 있다. 그렇지만 <思親歌>, <孝婦歌>등에서처럼 직접적이며 일방적인 주제 전달의 방식이 아니라, 매우 곡진하게 이른바 감춤의 美로써 드러내는 수법이 돋보인다. 『詩經』의 <당체> 시를 끌어와 고전에 빗대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점 또한 선비풍의 기품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유배지에 있는 자신의 처지로서는 한없이 멀리만 느껴지는 일이지만 知友가 택한 그 길이 反哺의 행함과 임금을 생각하는 두 마음임을 曲盡하게 그리고 있다. 이에 최산두는 父母奉養을 이유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안순지에게 사기를 높여 주려했고, 자연에서의 安分知足 할 수 있는 모습을 자연과 대비시켜 표현했다.

다음 <贈安順之>³⁸⁾도 위와 같은 심정으로 父母奉養을 위해서 落鄉하는 安順之에게 보내는 詩이다.

萬里思君夢	만리 밖에서 임금을 생각하는 꿈과
三更念母心	三更에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
兩情俱不歇	두 그리는 마음 한 시도 그칠 새 없으니
送子一盃深	그대에게 한잔 술 가득 부어 보내오

16세기 신진사림의 이상은 유교의 실천성에 입각한 愛民民本의 공리실현에 있었고, 그들이 추구했던 道學理論도 이러한 범주 안에 이해되고 있었다. 그러나 民生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맛보아야 했던 뜻있는 젊은 선비들로서는 현실에 대한 갈등이 첨예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현실을 등지고 개인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대적 요정도 아니며, 사실을 형상화하여 당대 시대적 상황을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8) 위의 책, <贈安順之>.

자신이 하지 못한 못내 아쉬운 부모님에 대한 효도, 그것을 친한 벗 순지가 행하려 한다니 얼마나 기쁘고 부러웠을까? 신재의 그 마음은 어느 한곳에도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一盃深’ 곧 ‘한 잔 술 가득 부어’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부러움과 안타까움, 죄스러움과 부끄러움 등 불효자의 암울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최산두는 충과 효를 노래한 시를 통하여 국가와 민중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직설적·교술적·설득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대적 갈등과 개인적 갈등을 그윽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춤의 미학으로 암향의 아름다움으로 애민과 충효의식을 담아내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IV. 맺음말

崔山斗는 己卯名賢으로 조선중기 호남사림의 중요한 위치에 선 학자요, 문장가이지만 아직까지 그의 문학세계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 연구는 그의 詩創作 배경과 詩世界를 고찰함으로써 그의 문학경향 및 문학 활동을 유기적이고 통일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의 詩에는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에 의한 문제로 인하여 파생된 영향이 문학작품에 많이 반영되어 나타났으며, 자연의 질서에 대한 조화, 교유간의 두터운 우정과 의리, 그리고 유가적 입장에 입각한 충효와 애민의 정신 등을 추구함을 파악했다. 따라서 그의 詩世界에 대한 指向點과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최산두는 조화로운 자연을 吟味하면서 自然現象과 시대의 倫理와 늘 변하지 않는 인간의 道理와의 조화를 담고 있다는 天然的 靈感을 문학작품에 나타내려 했다. 또한, 실재의 자연을 통하여 性情을 陶冶하고 청렴한 기상과 고귀한 기상을, 그리고 진실한 인간적 삶을 추구하는 시인자신의 정신

세계를 자연과 융화시켜 형상화했음을 파악했다.

둘째, 계속되는 사회로 많은 동료들과 헤어지게 됨으로써 기다림을 소중한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나타냈으며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교유관계의 안타까움을 승화시켰다. 여기서 그에게 따르는 苦惱와 孤獨感은 작품을 속에서 현세를 일탈하여 냉철한 지적 정신과 고결한 인간적 삶의 연속으로 표출되었다.

셋째, 조선조 사대부 문학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忠臣戀主라고 할 수 있는데, 최산두는 충효의 주체의식을 은근하고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또한, 부모에 대한 반포의 효를 못 다함을 고통스러움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국가나 군주를 우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시대적 갈등과 개인적 갈등을 담은 선비정신의 의지적 단면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그의 성실하고도 진실 된 삶의 원리는 당대 문장과 학행이 탁월하여 尹 衢·柳成春과 더불어 ‘湖南三傑’이란 칭호를 얻기에 이르렀는바, 그의 도학정신은 호남의 거유로 불리는 河西 金麟厚와 眉巖 柳希春에게 전수되어 호남의 학문적 전통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신재 최산두는 16세기 호남시단의 중추적 인물이요, 호남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호남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우뚝 선 학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원인은, 일차적으로 그가 남긴 작품이 전화로 영성한 점과, 후학들의 관심 소홀 및 문학 인보다는 도학자로서 평가되는 등의 입장 때문이라 하겠다.

최산두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본 연구는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라 하기에는 성급하지만 최산두의 詩文學 研究에 있어서 단초를 이루었다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일실된 자료를 찾는 노력과 함께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올바르게 타당한 문학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金興圭, 「陸史의 詩와 世界認識」, 『文學과 歷史의 人間』, 서울 : 創作과 批評社, 1980.
金麟厚, 『河西全集』下, (株)寶晉齋, 1988.
安順之, 「安思齋堂集」, 『韓國文集叢刊編纂人名錄』, 1990.
이동환, 「海東雜錄」, <崔山斗傳>, 『大東野乘』所載, 財團法人民族文化推進會, 1971.
草溪崔氏大同譜編纂委員會, 『新齋集』, <序文>, 郎州印刷社, 1989.
崔漢善, 「石川 林億齡 詩文學 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4.

<투고일 : 2006. 6. 27. 심사일 : 2006. 7. 15. 심사완료일 : 2006. 7. 31.>

K C I

<Abstract>

Sin Jae Choi San Doo's, Chinese poem Appreciation

Baek, Suk-ah

This article purpose of viewing Sin Jae's chinese poem. Last 16th century at the Ho Nam's poetical circles. He was famous character and an outstanding achievement as a man of thought.

Nevertheless, we were indifference of the general research toward his poem and thought. That unsatisfactory results not only regarded as lacking interest in learned circles and a great loss his work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n in 1592, but also appreciated him as a man of virtue.

It is deplorable that Sin Jae's research should be in disregard. This article emphasis on San Doo's poetical background and a style of poetry. I searched all over his work and thought. Especially about his author mind poet's distinguishing mark etc.

We are now starting Sin Jae's research. I hope that he will settle down at the history of literature and discovered his not-founded works including multiple interesting and various researches.

Keywords : Sin Jae's poet, background, thematic research.